

시론

운동장은 상처를 치유하는 '사회적 응급실'이다



김영식 GITC국제대학교 부총장

4월 최고 기온을 넘어서는 한여름 날씨가 찾아왔다. 여름을 준비하는 마음이 급해진다. 필자가 거주하는 집 앞에는 유치원과 어린이 공원이 있다. 사계절의 변화 속에 아이들의 체육활동과 재잘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면 그 어떤 음악보다 행복한 선율이 느껴진다. 조만간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의 운동회 소식이 들려올 때다.

그런데 최근 지역의 한 국회의원의 인터뷰 기사를 보고 사뭇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이들의 체육 시간 함성이나 점심시간 축구 소리가 크다며 지역 주민들이 경찰에 민원을 넣어, 아이들의 활동이 '공공의 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전국 초교 6천189곳 중 312곳이 민원을 이유로 교과 시간 외 스포츠 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접수된 112건 중 300건 중 무려 98.5%에 경찰이 현장 출동했다고 한다.

필자가 자주 언급하는 내용이지만, 일상의 공포가 때때로 사회적 폭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육체적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 TV만 틀면 쏟아지는 비극적인 사건들은 우리 국민을 집단적 트라우마와 무력감으로 몰고 있다. 운동장은 단순한 체육 공간이 아니라, 상처받은 공동체의 회복탄력성을 키우는 가장 안전한 '사회적 응급실'이다.

전 세계 교육 선진국들은 이미 운동장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다. 미국은 과거 과잉 보호

교육인 '헬리콥터 부모' 시대를 거치며 아이들의 사회성과 면역력이 저하되는 부작용을 경험했다. 최근에는 이를 반성하며 '방목형 교육(Free-Range Kids)'과 '위험 감수 놀이(Risky Play)'를 장려한다. 신체 활동 중 겪는 작은 찰과상이나 갈등은 아이가 성인이 돼 직면할 거친 세상을 이겨낼 '예방주사'와 같다. 운동장에서 넘어져 본 아이가 위기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더 잘 배우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 아는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가원 역시 미국의 '플레이그라운드 운동'이었다. 청소년 문제를 체육활동으로 해결하는 데 성공한 단체의 명칭이 바로 '레크리에이션'이었고, 그 이름이 오늘날의 보통명사가 된 것이다.

고령화가 심화된 일본에서도 아이들의 소리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과거에는 소음 민원이 문제가 되기도 했으나, 이제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마을에는 미래가 없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 학교 운동회를 지역 축제로 승화시켜 주민들이 함께 즐긴다. 아이들은 이 과정에서 지역 공동체의 따뜻한 지지를 받으며 정서적 안정감과 소속감을 얻는다. 아이들의 소음을 공동체의 '생존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청소년의 체력 약화를 국가적 위기로 규정하고 '체교융합(體教融合)' 정책을 강력히 시행하고 있다. 운동장에서 땀 흘리는 시간을 공부만큼 중요하게 여긴다. 강도 높은 신체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인내심과 자기 절제력을 배우며, 이는 학습 집중력을 높이는 근간이 된다. 최근 방문한 중국과 필리핀의 학교들은 과거 우리가 했던 육체 단련 위주의 체육 활동을 매우 활발하게 장려하고 있었다. 그들이 운동장

에 집중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몸을 움직이고 소리 지르는 행위가 자아가 뇌의 행복 호르몬을 깨우고, 갈등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가장 원초적인 치유 과정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무도인으로서 가장 먼저 배우는 기술이 '공격'이 아닌 '낙법(落法)', 즉 잘 넘어지는 법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막는 완벽한 알고리즘이 아니다. 이미 일어난 비극과 갈등 속에서 어떻게 될 다치고, 어떻게 다시 웃으며 일어설 것인가를 가르치는 '사회적 낙법'이 절실하다.

정치적 증오와 사회적 참사로 마음이 멍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제안한다. 운동장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함성을 소음이 아닌 '희망의 심장박동'으로 들어줬으면 한다. 아이들이 부딪히고 넘어지며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울 때, 우리 사회의 끊어진 공감 능력도 서서히 복원될 수 있다. 웃음 활동을 연구해 온 사람으로서 필자는 확신한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며 터뜨리는 웃음소리는 집단 트라우마를 해독하는 가장 강력한 '정서적 방화벽'이 된다.

나는 묻고 싶다. 당신의 아이가 웃음 띤 얼굴로 학교생활을 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웃음이 사라진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좋은가. 이제 운동장을 아이들의 신체 근육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아픔을 이겨낼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성소로 만들어야 한다.

"아이들이 넘어져도 괜찮아. 우리에게는 다시 일어설 '웃음의 낙법'이 있으니까."

운동장에 울려 퍼지는 그 무구한 웃음이 2026년 '영구적 위기(Polycrisis)'의 시대를 다시 살리는 가장 뜨거운 치유의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社說

준비 안된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심각한 혼란 부를 것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개원 예정인 특별시의회는 조직 개편과 정원 조정, 예산 배분 등 급박한 안건을 초기 단계에서 처리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전남도의회 간 주도권 다툼이 격화되면서 공백 상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도 삽바싸움이 한창이다.

단적으로 시의회가 본회의장 시설 확장 공사를 추진하자 도의회가 논의 없이 진행된 점을 문제 삼으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향후 통합의회 소재지와 본회의 개최 장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시도로 규정했던 것인데, 뒤늦게 실시설계 용역만 추진키로 해 일단락됐으나 여진은 남아 있다. 추정사의 경우 관련 규정조차 없는 만큼 대결의 여지가 다분하다. 특별법 상에 전남 동부·무안·광주 3곳의 청사를 균형있게 운영하도록 명시했음에도 여전히 분청을 어디에 둘 것인지 갈등이 잠복한 사정을 감안하면 휘발성 강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확정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한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도 극심한 대의성 불균형을 해소하기에 너무 부족했다. 전체 정수

외명 중 전남은 63석(지역구 55석)을 차지하는 반면 광주는 28석(지역구 24석)으로 한쪽으로 기울어져 낯선 신경전을 예고하고 있다. 전남과 광주 간 의정권 교대나 상임위원장 배분 등 권력 분점을 비롯해 사무처 통합 방안과 기본조례 초안 등에 대한 정교한 정치적 합의와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다수당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더불어민주당이 컨트론타워를 구축해 책임있게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핵심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아무런 준비가 돼있지 않다. 특별시의회의 정상적인 개원에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의정단 선출과 조직 구성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 출발선부터 빼먹거린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특별 시민에게 전가된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최고 지지기반이라는 점에서도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행정통합 논의에 비하면 의회통합은 제자리 걸음이다. 정치권 차원에서 최대한 조율해야 한다. 상생 정신을 바탕으로 한 역사적 과업이다. 국가와 지방 발전을 위한 비전이다. 초기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어쭙잖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1인가구 급증한 광주 정교한 맞춤형 정책 설계 필요

광주시민 6명 중 1명이 혼자 산다. 광주시가 발표한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4년 전체 인구는 29% 감소한 반면 1인 가구는 19.7% 급증했다. 또한 63.8%는 연 소득 2천만~4천만원 구간에 분포했다. 대출이 없는 경우는 63.4%였고 대출 및 카드 연체자 비율은 1.1%에 그쳤다. 특히 연체자 가운데 33.0%는 300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집계됐다.

1인당 월평균 카드 지출액은 약 95만원이었다. 생활패턴으로는 86.8%가 월 30명 이상과 통화하고 있으며, 평균 기준 하루 평균 4시간 여 IPTV 등을 시청하는 비율은 30.8%였다. 타지역 전출 가구는 광주 거주보다 고소득 비율(연 4천만원 초과)과 카드 소비액(평균 106만원)이 높았으나 통화 대상이 없거나 외출 빈도가 낮은 등 사회적 고립 가능성은 오히려 더 높았다는 분석도 흥미롭다.

빠른 속도로 1인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다. 가족 형태가 급변하고 있다. 전국적이다. 다행히 광주에서 우려할만한 내용은 수치로 드러나지 않았다. 비혼과 이혼으로 인한 1인 가구 중·고령자들이 균형 잡힌 식사와 의료 이용 등 일상생활

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도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형태로 자리잡았다. 20~30대는 학업과 취업 등 자신의 선택으로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생애주기 흐름과 연결된 자연스런 현상으로 혼자 사는 것에 일부 만족한다고 하지만 경제, 안전, 건강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광주시는 이번 기초 자료를 토대로 보다 정교한 정책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1인 가구는 복귀 용병동이 가장 많았고, 비율은 동구 서남동이 가장 높았다. 자치구별 차이를 반영한 서비스 개발, 보완도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연령대와 성별 특성을 아우른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는 등 복지체계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1인 가구가 가속화되고 있으나 주거 불안 등 위기 상황이 상대적으로 잘 부각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밥 먹을 때, 몸 아플 때 등 힘들다고 한다. 고령층으로 갈수록 의료이용을 쬐는다. 사회적 관계망 미흡에 따른 다양한 고충을 호소한다. 실질적인 생활패턴과 소비형태를 도출한 실태보고서에 주목해야 한다.

기고

목일신을 아시나요



송형택 언론인·수필가

올해인 2026년은 어린이날을 제정한 지 104주년이 되는 해다. 어린이는 한 나라의 근간이며 희망이라는 말은 두 번, 세 번 되풀이해도 부족하지 않은 말이다. 따라서 어린이를 위한 일은 개인이나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과 의료 등 다양한 복지제도 또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 그렇게 어린이를 위한 일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기에 여러 일이 있지만, 어린이를 위한 문화도 그중 하나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좋은 책을 읽을 수 있게 함은 물론, 성장발달 시기의 정서에 적합한 노랫말로 노래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를 위해 처음 쓴 시는 1908년 장강진 집지 '소년'지에 발표된 최남선의 신체시 '해에게서 소녀에게'라고 학창 시절에 배웠다. 이 시는 '세계를 향해 열려 있는 바다의 광활한 공간을 통해 밀려드는 개화의 세찬 물결이 소년의 대답하고 티 없이 맑은 마음속에서 피어나 새로운 역사 창조가 이뤄질지 바라는 마음'이라고 한다.

우리 지역에도 최남선처럼 어린이를 위해 글을 쓴 선구자적인 인물이 있으니, 바로 고흥 출신 목일신이다. 목일신은 1913년 고흥을

행정리에서 목사이자, 독립운동가였던 목치숙의 아들로 태어났다. 초등학교 시절 누구나 불러봤을 '파르릉, 파르릉 비켜나세요. 자전기가 나갑니다 파르르릉'의 창작 동요 '자전거'는 목일신이 고흥동초등학교 5학년 때인 1928년에 지은 노랫말이고, 우리 지역에서는 처음 발표된 동요이다. 목일신은 1928년 순천 매산학교에 입학해 어린이 잡지 '아이 생활'에 '새의 노래'를 발표했고, 1929년 학교를 전주 신흥학교로 옮겼다. 그해에 광주학생독립운동으로 투옥되고 퇴학을 당했다. 1930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동시 '잠새'와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동시 '시골'이 당선, 이듬해에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동시 '물레방아'가 당선됐다.

이렇듯 작가의 등용문인 신춘문예에 다섯 번 당선되는 등 목일신은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 아동문학가로 명성을 떨쳤다. 이 목일신을 기리기 위해 그가 생의 마지막을 보낸 경기도 부천시는 목일신 문화재단을 세우고 '목일신 문학상' 등 각종 기념사업을 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부천 중앙공원 등에 노래비를 세우고 그의 이름을 딴 일신초등학교, 일신중학교가 있다. 또 목일신 공원이 있으며 부천시 심곡천의 다리도 '목일신교'이다. 그리고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에서 계수동 구간 도로는 그의 호를 따 '은성로'로 지정했다.

목일신의 고향인 고흥에서도 그의 모교와 생가터 구간인 고흥읍 남계리에서 행정리 구간을 '목일신로'(명예도로)라고 지정하고, 모교인 고흥동초교와 고흥문화회관에 '자전거'

노래비를 세웠다. 또 목일신 동요제와 목일신 동시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렇게 고홍이 낳은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 아동문학가인 목일신을 기리는 일은 자랑스럽고 후세에 본보기가 되는 일이라 여겨진다. 그럼에도 2023년 5월5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목일신의 송고한 업적을 다시금 되새기는 것은, 목일신의 애국심과 어린이 사랑이 우리 사회에 더욱 넓고 깊게 뿌리내리고 큰 힘이 돼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다.

올해인 2026년은 목일신이 동요 노랫말 '자전거'를 쓴지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더해 전남·광주 통합해 더 큰 미래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해이기도 하다. 큰일에는 큰 의미도 있어야 한다. 그중 하나로 목일신을 기리는 일을 경기도 부천과 그의 고향인 고흥군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전남·광주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 행사와 기념사업도 있어야겠지만, 그 정신과 뜻을 이어갈 수 있는 지역 어린이들의 참여 폭과 기회가 확대됐으면 한다.

또 목일신 동요제, 동시제가 우리 전남·광주 전 지역으로 확산하도록 행정관청의 사업에서 우리 지역의 아동문학 단체 등과도 함께 하는 사업이 됐으면 한다. 그리해 이제 한 사람의 목일신이 아니라, 우리 어린이들 모두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고, 좋은 책을 읽고, 동심이 넘치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었으면 한다. 104주년 어린이날을 맞아, 고흥이 낳은 훌륭한 스승 목일신을 생각하며 전남·광주 통합을 계기로 그의 정신과 뜻이 우리 지역에서 더욱 풍성해지고 빛나기를 기대한다.

독자투고

농촌지역 농번기 교통사고 반드시 예방해야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농촌지역 도로에는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 운행이 급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차량 통행 속도가 빠른 도로 환경이 맞물리며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은 도로여건에 따라 과속이 빈번하고, 야간에는 조명시설이 부족해 사고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차

량 운전자는 농촌지역 진입 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농기계 발견 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해질녘과 야간 시간대에는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농기계 운전자 또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도로 주행 시 반사판과 등화장치를 반드시 부착하고, 가능한 갓길을 이용하며 음주 후 운행은 절대 금지해야 한다.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이다. 서로를 배려하는 안전운전으로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어야 할 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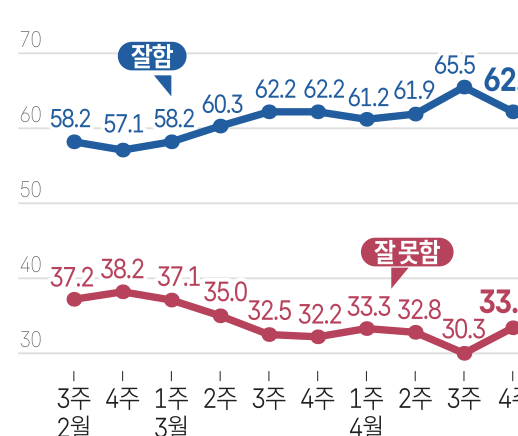
〈김종원·강진경찰서 읍내지구대〉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픽 뉴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추이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4월 20일~4월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2,509명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0%p) 무선100% 자동 응답 전화 설문 방식, 응답률 5.4%



※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연립뉴스 자료: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7주째 6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24일 전국 18세 이상 2천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정 평가는 62.2%로 집계됐다. 지난 주 조사보다 3.3%포인트(p) 내린 수치다.

부정 평가는 3.4%p 오른 33.4%를 기록했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4%로 집계됐다. 지난 23~24일 전국 18세 이상 1천6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1.3%, 국민의힘이 30.7%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0.8%p 올랐고, 국민의힘은 0.7%p 내렸다. 개혁신당은 3.6%, 조국혁신당은 2.5%, 진보당 1.3%로 집계됐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

p, 응답률은 5.4%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4.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연립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부회장 馬讚皓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1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Table with 4 columns: Department (편집부,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 Phone Number, and Fax Number.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에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202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제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